행정안전부	보 도 자 료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보도 일시	2022. 4. 20.(수) 12:00		
담당 부서	정부혁신전략추진단 운영지원팀	책임자	과 장 임충현 (044-205-6412)
		담당자	서기관 김수정 (044-205-6413)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국민제안을 정책으로'

- 4.21.(목)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 4년간 추진성과 공유 및 발전방안 모색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4월 21일(목),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전체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2018년 11월 출범한 정부혁신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업·시민단체·학계 등 민간위원과 정부혁신 관계부처(차관)·지방자치단체(부단체장)·공공기관·지방공기업(대표) 등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국민참여 기반의 범정부 민·관 정부혁신 협의체이다.

* 공동위원장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주형철 전(前)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 협의회는 「광화문1번가 '혁신제안톡'」을 통해 국민이 제안한 정책을 민간위원들과 숙의·숙성한 후 협의를 거쳐 정책화를 추진해 왔다.

○ 이번 전체회의는 정부혁신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전체회의는 ▲정부혁신추진협의회·국민포럼 활동성과 발표,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사례 검토, ▲정부혁신추진협의회·국민포럼 운영 개선방안 권고안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 먼저,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발표하고 올해 국민제안이 정책화 된 사례를 검토한다.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97건이 정책화 과제로 채택되었으며, 코로나19 공공데이터 공개를 통한 마스크앱 개발, 무장애 숲길 설치 기준 개선 등이 정책화되어 전 국민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2018년 25건, 2019년 25건, 2020년 17건, 2021년 28건, 2022년 2건 등

□ 올해는 ‘학교 무상우유 급식 제도 개선*(농림축산식품부)’, ‘아이스팩 재활용 분리배출함의 정식명칭 의무화**(환경부)’등 2건의 국민제안이 정책화 추진과제로 선정되었고, 과제 주관부처에서 정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무상우유 급식이 관리 부주의로 인한 식중독 및 우유 알레르기 발생 등의 우려로 바우처 등으로 전환

** 아이스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및 관공서의 쓰레기 분리배출함에 ‘아이스팩’을 정식명칭으로 의무화

□ 이후, 협의회 서비스분과위원장인 서경란 위원은 정부혁신국민포럼* 174명 운영위원의 경험과 의지가 담긴‘정부혁신추진협의회·국민포럼 운영 개선권고안’을 발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발표에서는 국민제안의 주요과정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참여자의 효능감을 높이는 방안과 지자체 주민공론장의 의제 발굴과 연결해야 한다는 아이디어 등이 제시됐다.

○ 아울러 각 부처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혁신”정책 수립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 정부혁신국민포럼 : 국민이 제안한 정책아이디어를 국민이 직접 숙의숙성하는 국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으로 협의회 위원장이 대표를 겸임하고 50여만명의 회원 중 각 분야 전문가를 운영위원으로 위촉함

□ 주형철 정부혁신추진협의회 공동위원장은“혁신의 성공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끈기라고 생각한다.”라며, “정부혁신이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끈기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동안 협의회 위원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로 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준 덕분에 국민의 제안이 정책화되고, 국민 편의가 증대되어 왔다”면서 “정부혁신은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1 **2022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전체회의 개최계획(안)**

□ 회의 개요

○ **일시/방식** : ’22. 4. 21.(목) 14:00~15:00 / 영상회의(Zoom)

○ **참석대상** : 공동위원장* 포함 협의회 위원 48명(민간 34명, 정부 14명)
제도개혁비서관 등 약 50여명

* 전해철 행안부 장관, 주형철 민간위원장(前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 회의 안건(안)

○ (보고) 협의회 그 간의 업무 추진성과

○ (발표) 정부혁신추진협의회·국민포럼 운영 개선방안 권고안

□ 시간계획(안)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00~14:05	05’	개회사 및 참석자 소개		
14:05~14:15	10’	인사말		위원장 장관
14:15~14:25	10’	보고	○ 정부혁신추진협의회·국민포럼 활동성과 -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성과 등	
14:25~14:35	10’	발표	정부혁신추진협의회·국민포럼 운영 개선방안 권고안	서경란 분과위원장
14:35~15:00	25’	토론 및 마무리		위원장

참고 2 권고문 발췌

정부혁신을 위한 정책 제언 : 정부혁신국민포럼

그동안 정부혁신은 크게 2가지 경로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대선공약집을 통해 제안된 과제들이 '인수위원회'를 통해 국정과제라는 이름으로 임기 5년 동안 추진할 정책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부 부처에서 글로벌 산업환경변화, 기술규제 등 변화대응을 위한 분야별 전문과제로 추진되는 일반 정책경로입니다. 2가지 경로 모두 구조적이고 전문적 과제 중심으로 소수 전문가와 정부 부처 중심으로 진행되는 정부혁신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빠른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행정의 인식과 변화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광화문1번가로 시작한 국민참여 방식을 발전시켜 정부혁신1번가 정부혁신국민포럼을 운영하였고, 생활 속 국민 불편과제와 생활과제는 물론 안권, 안전, 사회적 약자 등 기존 정책경로에서 놓쳤던 현장 사각지대에 주목함으로써 지역사회 등과의 공동체 과제,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동행과제 등을 포괄하여 발굴했습니다. 정부혁신국민포럼은 정부혁신 공론화의 장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인 국민제안 접수창구 '혁신제안톡'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이 직접 정부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정책화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현안 중심의 실천적 과제발굴을 통해 새로운 정부혁신 경로를 구조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민참여방식의 정부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삶이 한층 나아지고 국가 경쟁력이 한 단계 발전할 것입니다. 국민이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와 함께 정책화하는 것은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정부혁신, 나아가 민관 협치 거버넌스,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 핵심입니다. 정부혁신국민포럼 174명 전원은 새로운 정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발전시켜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권고문을 만들어 제출하오니 적극적으로 정책 수립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정부혁신추진협의회·국민포럼 운영 개선 권고문 〉

▶ 의제 1. 정부혁신 추진체계 개선

국민들은 '변화'를 넘어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위상과 권한의 부족으로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유의하고 좋은 국민 혁신 제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혁신추진협의회·국민포럼'을 부처와 지방정부의 업무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실질적 권한과 위상의 조직체계로 개편할 것을 권고합니다."**

▶ 의제 2. 국민참여 제안 개선

【의제 2-1. 좋은 제안 발굴】

온·오프라인 통합플랫폼을 통해 정책화하고 있지만, 제안 참여자의 다양성 부족, 중복제안, 민원성 제안, 혁신성과 구체성이 낮은 제안 등 좋은 제안 발굴을 통한 정책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책제안 플랫폼 제안기능 개선과 홍보 및 참여창구 확대로 제안 참여자의 수를 높이고, 개선된 제안기능을 제공하고, 제안의 토론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 요소를 정책제안에 다시 환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제 2-2. 숙의 숙성 활성화】

제안의 배경, 관련 현황, 개선방안 등에 관한 양면성, 관계법률, 관련부처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분야별 현장전문가와 국민포럼 운영위원의 심도 있는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온·오프라인 팀별 숙의·숙성 시스템을 보완하고, 주요 과정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운영위원의 참여 효능감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제발굴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현안을 확인하고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의제 2-3. 정책화율 제고 방안】

정책제안이 특정 주제에 편중되는 것을 지양하고, 정책화에 기여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확충이 필요하며, 평가점검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좀 더 다양한 분야와 많은 수의 정책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평가점검 가이드라인을 전문화해야 합니다."**

▶ 의제 3. 정책화 이후 발전방안 모색

【의제 3-1. 성과관리 강화】

정책화 완료 과제에 대한 홍보 부족, 혁신과제의 일회성 집행 등은 국민제안의 중요성과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제약 요인입니다. **"협업이음제도, 국민참여예산제도, 국민참여 우수사례 반영, 혁신행정담당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혁신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청년 서포터즈 등을 선발하여 완료과제에 대한 홍보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의제 3-2. 공감대 확산】

국민과 상호작용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혁신제안톡)가 높은 국민체감도와 인지도를 유지하고 국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혁신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주민공론장의 의제발굴과 연결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국민공감대를 확대해야 합니다"**

【의제3-3. 공무원 참여 적극화 방안】

공무원이 자발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혁신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즉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혁신제안을 정책화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고, 조직·근무형태를 실무직 공무원이 적극 참여하는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야 합니다."**